

# 현대 증(證) 정의의 역사 - 20세기 중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

김기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 Abstract

---

History of definitions of the Zheng (證)  
- a study based on 20th century Chinese literatures -

Kiwang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 Objectives

Although the word Zheng (證) is widely used basic term in nowadays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it's definition can't be found in ancient texts before 20th century, and the history in which that term got general meaning in public, have not been clearly introduced. So the present author show the way Zheng confirm it's modern implication.

### Methods

To search the books that contain any contents on Zheng's definition, the author mainly used the electronic texts of Super Star Reader (超星閱讀器). To search modern study article on Zheng's definition, the author used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ww.cnki.net).

### Result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 although Treatments according to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辨證施治) have been prominent treatment modality i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the general definition of disease Pattern (證) was given in late 20th century. Especially from 1955 to 1965, some major scholars like Ren Ying Qiu (任應秋), Zhu Yan (朱顏), Qin Bo Wei (秦伯未) and Jiang Jian Fu (蔣見復) did important roles in it's concept creation.

### Conclusions

Modern concept of Zheng (證) was defined in late 20th century.

### Key Words

Zheng, pattern identificatio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증(證), 변증(辨證), 동아시아 전통의학)

---

\* 교신저자 : 김기왕 / 소속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TEL: 051-510-8466 / E-mail : kingiwang@hanmail.net

투고일 : 2016년 06월 14일 / 수정일 : 2016년 06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06월 30일

## I. 서론

한국의 한의학이나 중국의 중의학, 일본의 한방 의학 등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증(證)이라는 독특한 진단 개념은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진단의 결론이 대개 특정의 병명(病名)인 데 반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진단의 결론이 병명과 함께 증명(證名)으로 내려진다. 특히 치료를 위해서는 증명을 얻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증의 개념이 오늘날의 의미로 확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쉽게도 현대의 전통의학 교재에는 증의 현대적 정의를 소개하고 있을 뿐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과정에 대한 종합적 조망을 제시한 연구 사례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증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의 의미에 도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재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증 정의의 초기 역사를 탐색하기 위해 초성열독기(超星閱讀器, Super Star reader, <http://www.chaoxing.com>)를 이용하였다. 검색 문헌의 저작시기는 1930년~2015년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증의 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 성과를 검색하기 위하여 중국지망(中國知網, <http://www.cnki.net>)을 이용하였다.

초성열독기를 통한 문헌 검색에서는 “중의(中醫)”가 제목으로 포함된 광범위한 범위의 단행본을 찾았으나 내용에 대한 검토는 1980년 이전에 출판된 문헌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1980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에서는 이미 현대적인 의미의 증(證) 개념이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어지망을 통한 논문 검색에는 관건사(키워드)가 “증(證)”으로 등록된 논문만을 찾아 시대순으로 열람해 가며 내용을 검토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한대(漢代)에 완성된 의학 문헌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는 기침이란 증상을 5장과 6부에 따라 11종의 하위 형태로 구분한 예가 등장한다. 여기서 그와 같은 구분을 한 기준은 기침에 어떤 증상이 동반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증상 조합에 따라 병태를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훗날의 증(證) 개념을 형성하는 데 한 가지 기초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책의 「열론(熱論)」과 후한 말 저작된 장기(張機)의 『상한론(傷寒論)』은 상한(傷寒)이란 질병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크게 6종으로 구분되는 병태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병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훗날의 증 개념을 형성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증(證)이란 글자는 오래도록 증상[症]을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상한론의 “태양병맥증병치(辨太陽病脈證并治)”와 같은 편 제목은 “태양병의 맥과 증, 그리고 치료를 변별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증이란 글자가 당시 타각소견(objective sign)의 대표 격인 맥과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증이란 글자가 자각증상(subjective symptom)을 나타내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증(症)이란 글자 자체가 역사에 등장한 것이 송대이고 증상이란 의미로 의서에 사용된 것이 청대의 『방증회요(方症會要)』

1. 肺咳之狀, 咳而喘息有音, 甚則唾血. 心咳之狀, …… 三焦咳狀, 咳而腹滿, 不欲食飲. (『黃帝內經·素問·咳論』)

會要, 1744)』에서 처음이었다는 것<sup>23</sup>을 고려하면 오래도록 증(證)이 증상을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현재의 증(證)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예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다. 후한의 『금궤요략(金匱要略)』에도 하나의 질병을 연관 장부나 관련 병인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한 예<sup>4</sup>가 등장하며 『천금요방(千金要方, 652)』이나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992)』 등의 처방서에도 그러한 하위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제시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조선의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에 이르면 대부분의 질병이 한의학적 병인에 따라 수 개 내지 십 수개의 분형(分型)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증에 해당하는 증상 조합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분형에 기초한 치료는 오늘날의 변증시치(辨證施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변증시치가 한의학의 주된 치료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증상 하나 하나에 대해 대응하는 처방이나 병명에 대응하는 처방보다 질병의 진행에 따라 변화되는 증상의 조합을 기준으로 처방을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근거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리라 본다.

하지만 오래도록 변증(辨證)이나 변증시치(辨證施治)<sup>5</sup>, 변증론치(辨證論治)<sup>6</sup>라는 표현은 쓰였어도

증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증(證)이란 글자가 증(症)자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증상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였기 때문이다. 현대 변증론치의 체계화에 기초를 제공한 주안(朱顏, 1918-1972)과 같은 학자도 변증론치의 개념을 설명하는 1954년 논문에서 증후(證候) 대신 증후(症候)란 표현을 썼을 정도<sup>7</sup>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증(辨證)’이란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변증(辨症)’, 즉 ‘증상 감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증(證)을 증상과 구분하고, 여기에 독특한 진단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임응추(任應秋, 1914-1984)는 50년대부터 최근까지 증(證)의 동의어로 종종 사용되었던 ‘증후(證候)’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1955년 발표된 논문에서

증의 증후는 치료(施治用藥)의 기준인 데 반해 서의 증상은 환자의 이상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 진단 치료의 관건이 아니다.<sup>8</sup>

라고 설명하여 증과 증상이 분명히 다른 것이며 증에는 치료를 지시하는 역할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1960년대가 되면 “증(證)은 증상의 증(症)과 다르다<sup>9</sup>”는 인식이 확실하게 된다. 또한 임응추의 지적에 뒤이어 주안(朱顏)은

2. 韋黎. 證、証、症、候的沿革和證候定義的研究. 中國醫藥學報 11(2):49 (1996)

3. 양무신(梁茂新. 『中醫證研究的困惑與對策』)은 『증치답난(症治答難, 1544)』, 『맥증치방(脈症治方, 1564)』 등의 명대 의학 서적에 증(症)자가 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위려(韋黎, 위의 논문)나 간조망(干祖望. 病、症、證三字必須區別. 醫古文知識 1995年 5期: 27)은 명대 의학 서적에서 증(症)자를 사용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예를 들어 권12의 「담음혜수병맥증병치(痰飲咳嗽病脈證并治)」에서 담과 음을 동반 증상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분형으로 구분한 예가 보인다.

5. 『신재유서(慎齋遺書, 1573)』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薛飛飛, 陳家旭. 中醫辨證論治體系的形成和發展.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年 29(10):658-661)

學學報 2006年 29(10):658-661)

6. 『의문봉갈(醫門棒喝, 1825)』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薛飛飛, 陳家旭. 中醫辨證論治體系的形成和發展.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年 29(10):658-661)

7. 朱顏. 中國古典症候治療的一般規律. 中華醫史雜誌 1954年 1期:1-8

8. 中醫的證候完全是施治用藥的標準, 而西醫的症狀, 不過是描寫病人的異常狀態, 殊非診斷治療上的關鍵. (任應秋. 中醫的辨證論治的體系. 中醫雜誌 1955年 47:19-21)

9. 證, 不等于症狀的症. (蔣見復. 略論辨證施治. 上海中醫藥雜誌 1965年 5期:1-4)

증은 질병의 내부 규율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증거다.<sup>10</sup>

라고 하여 증(證)이 증상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증거’를 나타내는 글자임을 주장하였고, 이는 오늘날 증의 문자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널리 인용되는 견해로 정착되었다. 또한 증이 하나의 증상이 아닌 증상의 조합임을 천명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는데, 진백미(秦伯未, 1901-1980)는 1963년 그의 저서에서,

증(證)은 증후(證候)를 말하고 증(症)은 증상(症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의 증은 증상(證狀)이라 칭하며 몇 가지 증상(證狀)을 종합하여 하나의 병증(病症)을 구성한 경우는 증후(證候)라고 한다.<sup>11</sup>

라고 하여 증상이 모여서 증을 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무렵 질병의 특정 시점에서 환자가 처한 상태에 대한 한의학적 평가 결과가 바로 증이라는, 오늘날의 견해에 근접한 정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62년 왕명휘(王明輝)는,

“증”은 환자의 몸에서 해당 시점에 나타난 각 증상과 소견을 팔강(八綱)에 따라 종합, 귀납하여 해당 시점의 질병이 반영하는 상태에 대해 총괄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sup>12</sup>

라고 증을 정의한 바 있다. 왕명휘의 정의는 팔강

이란 체계에 한정하여 증의 의미를 설명하였지만 이후 증의 정의는 팔강뿐만 아니라 전통의학 전 영역의 병인·병기 내지는 병성·병위 술어로 규정된 증상의 조합으로 확장된다. 왕명휘의 정의가 제시되고 3년이 지나(1965년) 장견복(蔣見復)은 증에 관하여

증은 질병의 병인, 병위(病位), 병기(病機) 및 질병의 발전, 전이[轉歸]를 개괄한다.<sup>13</sup>

라는 서술적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어떤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의 성격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후술할 오늘날의 교재에 등장하는 증의 정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증의진단학 교재에 장부변증을 전문적으로 다룬 부분이 등장하여 오늘날의 증의진단학 교재에서 다루는 증의 구체적 지칭 대상들을 점차 갖추어 가게 된다.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현재의 정의에 더욱 근접한 정의가 출현하는데, 예를 들어 1978년 출간된 『중의학기초』는 증을 “유기체의 질병 발전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 나타난 각종 증상의 개괄”<sup>14</sup>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는 증이란 말이 증상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개괄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증을 질병 진행 과정의 한 단계에서 나타난 증상들에 대한 성격 규정으로 본 것은 현행 중의학 교재의 정의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1984년에 이르면 증의 정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해 4월 개최된 증의증후규범학술토론회(中醫證候規範學術討論會)에서 증(아래 인용문에서는 ‘증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13. 證, 是概括了疾病的病因、病位、病機, 以及它的發展、轉歸等等。(蔣見復, 略論辨證施治, 上海中醫藥雜誌 1965年 5期:1-4)

14. (證是)機體在疾病發展過程中某一段階出現的各種症狀的概括。北京中醫學院, 中醫學基礎,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年

10. 證, 是全面反映疾病內部規律性的證據。(朱顏, 淡淡中醫辨證論治的基礎, 天津中醫藥雜誌 1961年 2期: 65-68)

11. 證指證候, 症指症狀, 一般對單獨的證稱為證狀, 由幾個證狀綜合成一個病症時稱為證候。(秦伯未, 李岩, 張田仁等, 中醫臨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附錄: 辨證論治淺說 p.1))

12. “證”是對患者機體當時出現的各個症狀和體徵, 按着八綱進行綜合歸納, 給當時疾病反映的狀態, 作出總的評定。(王明輝, 從“病”、“證”、“治”談到“同病異治”和“異病同治”, 江西醫藥 1962年 5期:18-19)

증후는 질병의 본질의 반영으로서, 질병의 발생·발전 과정 중 상관성을 갖는 한 조組의 맥(脈)·증(症)으로 표현되며, 다양한 정도로 병위, 병성, 병인, 병기를 나타내고, 치료에 대해 그 근거를 제공하며 아울러 치료의 방향을 지시한다.<sup>15</sup>

이는 증이란 진단명이 증상(및 타각소견)의 조합이며 이것이 병의 본질, 즉 병위, 병성, 병인, 병기를 나타내고, 치료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근래 일본의 변증학 문헌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확인된다.

증이란 환자가 현시점에서 나타내는 증상을 기혈수(氣血水), 음양, 허실, 표리, 오장, 육병위(六病位) 등의 기본개념을 통해서 병태의 특이성을 가리키는 증후를 파악한 결과를 종합해서 얻어낸 진단이자 치료의 지시이다.<sup>16</sup>

위의 정의에서는 앞서 병위, 병성, 병인, 병기로 표현되었던 이른바 “질병의 본질”이 기혈수, 음양, 허실, 표리, 오장, 육병위(六病位=三陰三陽)라는 보다 구체적인 한의학적 술어로 치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개한 바와 같이 1984년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위와 같은 증의 확장된 정의가 도출되었지만 이는 정의로서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후 중국의 증 정의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되게 된다. 한 가지 요소는 증이 질병의 한 시기(단

계)에 대한 규정이란 점이며, 또 다른 요소는 증이 신체 상태에 대한 해석의 결과, 즉 “병리의 개괄”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의 중의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일례로 1992년 출간된 『중의기초이론』 교재는 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증은 유기체가 질병 발전 과정 중 어떤 한 단계에 있을 때의 병리의 개괄이다. 이는 병변의 부위와 병인, 성질 및 정기·사기의 관계를 포괄하며 질병 발전 과정 중 어떤 한 단계의 병리 변화의 본질을 반영한다.<sup>17</sup>

3년 뒤 같은 곳에서 출간된 『중의기초이론』 교재는 이를 더욱 축약하여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핵심 요소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증은 질병의 발전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의 병리의 개괄을 말한다.<sup>18</sup>

200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정의는 학계에서 일종의 약속으로 굳어지게 된다.

오늘날 중의학의 “증”에 대한 약정은 다음과 같다. 증은 질병의 진행 과정 중 질병이 일정한(현재의) 단계에 처하여 있을 때의 병위, 병인, 병성 및 병세 등에 대해 내린 병리적 개괄이다.<sup>19</sup>

이러한 증의 정의는 마침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서태평양지구 표준전통의학술어집에

15. 證候是疾病本質的反映, 在疾病發生發展的過程中, 它以一組相關的脈症表現出來, 能够不同程度地揭示病位、病性、病因、病機, 為治療提供依據, 并指明方向。(『中醫證候鑑別診斷學(1987)』에서 재인용)

16. 證とは、患者が現時点で現している症状を氣血水・陰陽・虛實・寒熱・表裏・五臟・六病位などの基本概念を通して認識し、さらに病態の特異性を示す症候を促えた結果を總合してえられる診断であり、治療の指示である。(寺澤捷年, 漢方の考え方(證)とは病ではなく人を診る體系, 千葉醫學 81:283-285 (2005))

17. “證是機體在疾病發展過程中某一段階的病理概括。他包括了病變部位、病因、性質以及邪正關係, 反映出疾病發展過程中某一階段病理變化的本質。”(印會河,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18. 證, 是指疾病發展過程中, 謀一階段의病理概括。(吳敦序,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7 (1995))

19. 當代中醫學對於“證”的約定: 證是對疾病過程中所處一定(當前)階段의病位、病因、病性以及病勢等所作的病理性概括。(中醫診斷學編委會, 中醫診斷學(7版), 2002. p.2)

도 “병위, 병인, 병성, 병세 등을 포함한, 질병의 한 시기의 병리적 변화에 대한 진단적 결론”<sup>20</sup>이란 표현으로 등재되게 된다.

#### IV. 결론

본 논고에서는 현대의 증 정의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고의 결론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하나의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 그 동반 증상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치료하는 방식은 『황제내경』과 『상한론』 이래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오래도록 계승되어온 치료 방식이었다.

둘째, 그러나 그러한 유형을 증후(證候)로 명명하고 그 증후의 규정을 증(證)이라 칭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일이다.

셋째, 임응추(任應秋), 주안(朱顏), 진백미(秦伯未)는 1955년~1963년 사이에 증후와 증을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오늘날 증의 개념이 갖는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넷째, 1965년 장견복(蔣見復)은 오늘날의 증의 개념을 포괄하는, 증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1984년 증의증후구범학술토론회(中醫證候規範學術討論會)에서 증후의 정의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섯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의 증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 동아시아 전통 의학을 다룬 서적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구 표준전통의학술어집에도 채택된다.

#### 參 考 文 獻

1. 韋黎. 證、証、症、候의沿革和證候定義的研究. 中國醫藥學報 11(2):4-9 (1996)
  2. 干祖望. 病、症、證三字必須區別. 醫古文知識 1995年 5期: 27
  3. 薛飛飛, 陳家旭. 中醫辨證論治體系的形成和發展.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年 29(10):658-661
  4. 朱顏. 中國古典症候治療的一般規律. 中華醫史雜誌 1954年 1期:1-8
  5. 任應秋. 中醫的辨證論治的體系. 中醫雜誌 1955年 4期:19-21
  6. 蔣見復. 略論辨證施治. 上海中醫藥雜誌 1965年 5期:1-4
  7. 朱顏. 淡淡中醫辨證論治的基礎. 天津中醫藥雜誌 1961年 2期: 65-68
  8. 秦伯未, 李岩, 張田仁等. 中醫臨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9. 王明輝, 從“病”、“證”、“治”談到“同病異治”和“異病同治”, 江西醫藥 1962年 5期:18-19
  10. 北京中醫學院. 中醫學基礎.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年)
  11. 寺澤捷年, 漢方の考え方(證)とは病ではなく人を診る體系, 千葉醫學 81:283-285 (2005年)
  12. 印會河,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年)
  13. 吳敦序,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年)
  14. 中醫診斷學編委會. 中醫診斷學(7版). (2002年)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western pacific region. 2007.
20. diagnostic conclusion of the pathological changes at a certain stage of a disease, including the location, cause, and nature of the disease as well as the trend of develop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western pacific region. 2007. p.79)